



남은 인생을 탄탄하게 해주는 기록



기록의 기술

김홍섭 · 이주원 지음
행복한 나무 펴냄 | 1만2000원

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상적인 업무와 메모는 익숙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답을 주는 책이 있다. <행복한 내 인생을 위한 기록의 기술>이다. 이 책은 자서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책으로 내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꿈 많은 20대에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그 때 새겼던 당신의 신조와 가치관은 무엇이었는가? 패기와 도전의 30대는 어떠한가? 방향을 잃고 표류한 적은 없는가? 40대인 나를 일으켜 세워준 조력자는 누구였는가? '이미' 이거나 '아직' 일 수 있는 당신에게 '기록의 기술'은 이제 시작임을 알려준다.

그렇다고 이 책은 플래너가 아니다. 자서전도 아니다. 플래너와 다이나리가 일 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 책은 인생을 정리하고 큰 틀을 세우게 해준다. 내 인생의 설계도 동시에 정리이기도 하다.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좀 더 탄탄하게 해 주는 것과 동시에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매개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나' 라는 아집부터 버려야만 해



내 마음의 이야기

제은 스님 지음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원

같은 산이라도 울긋불긋한 산은 변화하는 것으로서 오래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산은 오래 머물기에 느긋할 수 있고 화려한 가을산은 오래가지 못하기에 안타까워 몸부림치는지도 모른다. 저 멀리 높게 떠도는 백운도 마찬가지로 오래 머물 수 없기에 스스로가 나그네임을 알 것이며, 그리하여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실체가 영원하지 못함에 안타까워 부들부들 떠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늘 청산이고 싶지만 청산이 되지 못하고, 외로운 떠돌이 구름처럼 그렇게 산다고 여길 수도 있다. 선화(禪畵)작가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는 제은 스님이 수행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스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여행을 떠나지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나' 라는 생각 · 아집부터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마음은 잘 쓰면 큰 공덕이 되지만 잘못 쓰면 되돌릴 수 없는 업(業)이 된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30여년 경전 읽으며 수행한 '생활 수행인' 마음 편견을 버리면 진리가 보인다

우리집 정원에는 여러종류의 야생화가 있다. 노루귀 복수초 매발톱 금낭화 돌담꽃 등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제법 많이 있다. 이른 봄 가장먼저 꽃을 피우는 놈은 노루귀와 복수초이다. 노루귀는 아직 땅이 녹기도 전에 하얀색 보라색의 아주 조그마한 꽃부터 세상에 내 보낸다.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노루귀 같이 생긴 잎이 돋아난다. 그런가 하면 복수초는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노란 꽃과 잎이 동시에 언 땅을 뚫고 나온다. 그 부드러운 새싹들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노라면 생명의 약동하는 힘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는 다르지만 다른 야생화도 때가 되면 불과 여름에 새싹이 돋아나 자라고 꽃을 피우고 가을에 씨앗을 맺고 겨울이 되면 시들고 죽은 줄기만 남거나 아예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봄이 되면 또다시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고 또 겨울에는 모습을 감추는 순환을 거듭한다. -본문 44~45p 중-



아주 편하고 평이한 생활의 발견이다. 이러한 발견이 바로 진리다. 불교에 수많은 경전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그만큼 많은 것은 아니다.

진리는 하나다. 다만, 그 하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활화 하는 시각과 관념의 차이가 '천지천지'일 뿐이다. 그 하늘과 땅 차이를 좁히기 위해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을 들어 법을 설했고 조사와 선지식들은 온 몸으로 수행하고 그 견처(見處)를 활활발발하게 전했다.

행정학을 전공하고 대학의 부총장과 대학원장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AIT 대학원 대학 교수 등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서 일생을 살아 온 황명찬 교수. 고회를 맞으며 황 교수가 펴낸 수상집 <마음>에는 30여년 경전을 읽으며 수행해 온 '생활 수행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황 교수는 전원주택에 살며 인생을 회고하기 보다는 자연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진리들에 대한 경탄과 감사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있다. 그러한 갈무리가 한편의 책으로 나오는 데는 아들과 딸의 성장까지 더해졌다. 딸은 손으로 쓴 원고를 컴퓨터에 담고 아들은 멀리 미국에서 그 원고를 교정하고 편집했다. 책의 중간중간에 들어간 사진도 찍어서 배열했다. 자칫 '나머지 생'이 될 수도 있는 나이에 새롭게 보이는

진리의 모습 새롭게 들리는 진리의 소리들을 자녀들이 공유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책은 자분자분한 글에 시집과 같은 문장배열 등의 편견이 보태져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황 교수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진리로 변하지 않다는. '편견을 버리면 진리가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흉조라 여기는 까마귀를 일본 사람들은 길조라 생각한다. 흉하고 길한 것은 까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의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게 느껴지고 나쁘게만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좋고 나쁨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에 부합된 삶이라는 것을 황 교수는 강조한다.

황 교수는 글에서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이 담긴 경전들과 선사들의 어록 성철 스님의 법문 등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두 판단을 버리고 진리 그 자체를 보는 안목을 넓혀 주기위한 장치다. 자신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진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늘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마음>은 결국 진리를 발견하는 코드로 안내한다. 황 교수가 안내하는 코드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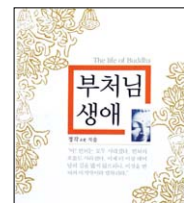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마음

황명찬 지음
지혜의 나무 펴냄 | 9800원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한 눈에



부처님 생애

정각 지음
운주사 펴냄 | 4500원

80성상에 이르는 부처님 생애와 깨달음 이후 펼친 가르침은 사실 나열 자체만으로도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부처님의 행적, 말씀 하나하나마다 큰 의미와 가르침이 담겨 있으니, 이를 다 담고자 한다면 필만대장경보다 많아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어떤 불교학자들은 부처님 생애를 간략하게 여덟 시기로 나눠 알기 쉽게 서술하기도 한다. 도솔래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왕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를 다시 탄생과 성장, 출가와 깨달음, 교화와 전법, 열반 등으로 간략화해 부처님 생애를 단숨에 읽어내리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요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핵심을 적절히 결합시켜,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우선 내용이 간결하고 책 크기도 포켓북 사이드로 손에 쉽게 잡을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2-3시간이면 쏙히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간결하다고 해서 부실하다는 얘긴 아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은 다 담고 있다. 제1부 탄생과 성장에서는 룸비니동산에서의 탄생을 비롯해 화려한 궁궐생활, 아쇼다라와의 결혼,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고뇌와 출가사문과의 만남 등이 실려 있다. 이어 제2부 깨달음의 여정에서는 스승들과의 만남, 고행림에서의 목숨을 건 수도 등이, 제3부는 유명한 가르침들, 제4부에서는 열반에 대한 예고 등이 들어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왜 나무야미터불인가	우익	불광출판부
5	절을 가져야 할 법	천경	롯데의 마음
6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7	까르마백, 나를 생각하세요	미셀 미틴	지영사
8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9	하루 108배 내물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10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측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뎀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대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지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은명록 전수생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은명록]의 저자 해광스님 직강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은명록
은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은명록]의 저자

자격 : 정규종단에 승적이 있는 스님, 법사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개원하여 포교에 진력할 분

서적구입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외 인터넷서점 · 불교서점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032)665-8472 / 010-3730-5247
경기도 부천시 상3동 533-7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력을 갖춘 독자적인 운명학 스승이 대공개!